

중국 조선족 거주환경 관련연구의 동향분석

An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Literature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s of Korean-Chinese People Residing in China

허성걸* 조원석** 변경화***
Heo, Seong-Geol Cho, Won-Seok, Byun Kyeonghw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literature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s of Korean-Chinese people residing in China. The number of such studies on residential environment is a total of 123, of which 86 (69.9%) are Korean studies and 37 (30.1%) are Chinese studie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China since the 1980s, but from 1990s onward, research was conducted in Korea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between the two nations. More studies related to history, society, and tradition have been conducted in China than Korea because China is a multiracial nation and Korean-Chinese people comprise an ethnic minority. In terms of residential environment, the majority of studies are related to architecture and space and are typically focused on villages and housing. Studies on traditional housing of the Korean-Chinese focus on general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housing, targeting China's three northeast provinces and the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of China. Studies on modern housing of the Korean-Chinese have mainly been conducted in Yanji City in China. The reason for this is that 41% of Yanji City's population is Korean-Chinese, a distinct difference can be seen between Yanji City and other areas regarding changes of modern housing, and *ondol* (the traditional Korean floor heating system) is commonly found in modern housing there.

키워드 : 조선족, 거주환경, 전통주거, 현대주거, 동향분석

Keywords : Korean-Chinese People, residential environment, traditional housing, modern housing, analysis of trend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¹⁾은 중국을 형성하는 56개 민족의 하나로서, 2010년 기준으로 인구는 약 183.09만 명으로 중국 전체인구의 0.1374% 정도를 차지한다.²⁾ 이들은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정착하면서, 주택을 건설하고, 마을을 형성하면서 그들의 고향인 한반도의 전통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비록 한반도에서 이주하여 중국에 정착하

여 사는 동안 중국의 다문화 영향이나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으로 인하여 그들의 전통문화가 상실되고 있지만, 중국 타 소수민족에 비하여 고유의 전통문화와 주거문화의 원형이 많이 계승되어 왔다. 1992년 한중 수교이후 한국 연구자들의 중국 현지조사가 가능해지면서 이와 같은 배경에서 조선족 거주환경관련 연구는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조선족과 관련된 연구 중, 주거환경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것은 조선족 주거환경이 도시건축분야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투영되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특히 축적된 조선족 거주환경관련 선행연구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중국 조선족 거주환경 관련연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을 대상으로 거주환경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파악하여 조선족 거주환경 관련연구 동향을 고찰하는 것으로 목적한다. 이는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반도 주거문화의 원형에 대한 검토, 시대와 지역적인 영향에 따른 주거문화의 변화, 다른 문화와의 영향관계 등과 같은 좀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회원, 가톨릭관동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정회원, 가톨릭관동대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 정회원, 가톨릭관동대 첨단해양공간개발연구센터 조교수, 공학박사
(교신저자 : khbyun@cku.ac.kr)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RF-2012R1A1A3003275)

- 1) 중국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를 중국어로 “Chao-Xian-Zu(한자 표기:朝鮮族)”라 칭하는데, 한국어로는 “조선족”이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를 중국의 한자표기인 “조선족(朝鮮族)”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2) 2000년 전국 제5차 인구통계조사(第五次人口普查数据出爐)에서 중국 전국의 조선족 인구는 192만 3천명으로 중국의 민족 중 14번째로 인구가 많은 민족이었으나, 2010년도 중국 전국 제6차 인구통계조사(第六次人口普查数据出爐)에서는 183만 9백 명으로 10년 전인 2000년보다 약 10만 명이 감소하여 15번째 인구의 소수민족으로 되었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중국 조선족 거주환경과 관련된 연구문헌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연구는 다음과 같이 2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거주환경 관련 연구문헌의 연구대상은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으로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관련연구는 제외하였다. 전체적인 연구흐름과 대상문헌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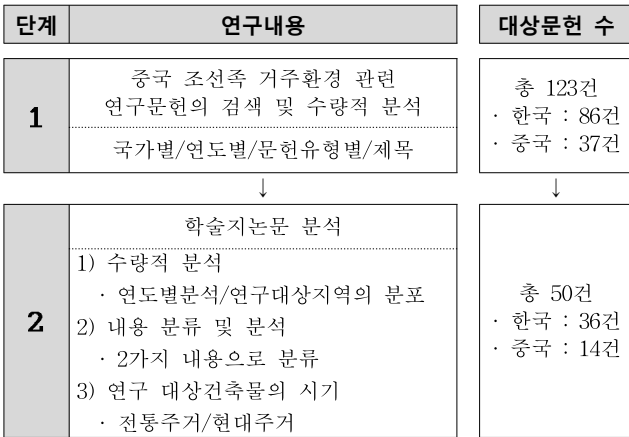


Fig. 1. Research Flow

1단계에서는 한국과 중국 2개국의 주요 문헌검색기관³⁾을 통해 조선족 거주환경과 관련된 연구문헌을 검색하고 문헌목록을 작성하였다. 검색된 문헌은 총 123건으로, 이 작성된 문헌목록을 국가별, 연도별, 문헌유형별, 그리고 문헌의 제목을 수량적으로 분석하였다.

2단계에서는 총 123건의 문헌 중,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전문 학술지 논문(이하 “학술지논문”으로 칭함)을 대상으로 수량적 분석과 연구내용을 분석하였다. 대상논문은 총 50편으로서 한국이 36편, 중국 14편에 해당하였다.

이 학술지논문에 대하여 국가별로 논문발생시기, 문헌유형, 그리고 연구대상지역의 분포를 고찰하였다. 문헌의 내용분석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거주환경과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시기적 관점에 따라 전통주거와 현대주거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였다.

2. 문헌의 수량적 분석

2.1 문헌 수량 분석

(1) 국가별

한국과 중국의 주요 문헌검색기관을 통해 검색한 조선족 거주환경과 관련된 문헌은 총 123건으로 나타났다 <Fig. 2>. 이 중 한국이 86건으로 69.9%, 중국은 37건으로서 30.1%로 나타났다.

3) 주요 문헌검색 기관은 한국의 경우 교육학술정보원(RISS),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교보문고 등이며, 중국의 경우 中國知网(CNKI), 中國國家圖書館(중국 국가도서관), 延邊大學圖書館(연변대학도서관)이다.

중국의 연구문헌의 수가 한국보다 2배 이상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의 인구 수에 비해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인구가 적고, 따라서 이에 비례한 연구자의 수가 적고, 조선족이 소수민족이므로 중국 내에서의 관심정도도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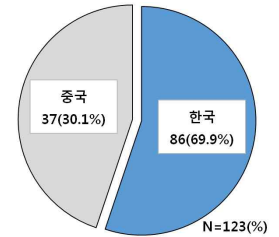


Fig. 2. No. of Literatures by Country

(2) 연도별 분석

중국 조선족의 거주환경에 대한 연구문헌의 발표 시기는 <Fig.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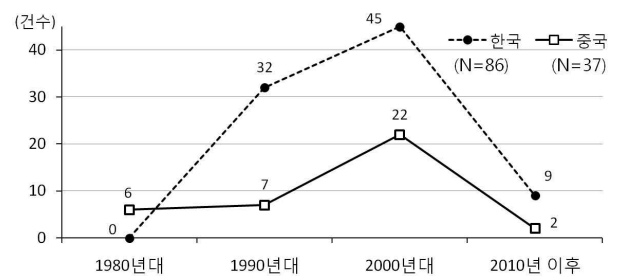


Fig. 3. No. of Literatures by Year

먼저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된 시기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연구가 진행되었고, 한국은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1990년대 이후부터 진행되었다.

중국의 경우 1958년에 조선족 사회와 역사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는데, 이는 거주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1958년 중국에서 진행된 인민공사화운동(人民公私化運動)⁴⁾을 위한 조선족 사회와 역사를 조사한 사항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중국의 경우, 문화대혁명⁵⁾ 기간에 “민족융합”이 강조되면서 “지방민족주의”와 낡은 문화, 낡은 풍속에 대한 비판 및 정책 하에 소수민족 우대정책이 폐지되었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모든 연구가 정지되어,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는 1980년대에 이르러 시작되었으며, 이 시기는 문화대혁명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시기로서 사회나 민속, 역사

4) 인민공사화운동(人民公私化運動)이란 중국공산당이 1958년에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운동이다. 인민공사(人民公私)란 그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모두가 자급자족 태세로 공사 내에서 완전히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배치된 사회조직이다. 즉 공업, 농업, 상업, 교육, 민병을 하나의 대공사로 병합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구비하고 공사, 생산대대, 생산대의 3단계로 구분된 복합적이고 대규모적인 집단적소유제를 바탕으로 한 사회조직이다.

5)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은 중국 인민공화국에서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진행되었던 사회적, 정치적 활동이다. 공식명칭은 “무산계급 문화대혁명(無產階級文化大革命)”이라고 하며, 중국에서는 이 기간을 “십년동란(十年動亂)”이라 칭하기도 한다. 모택동의 제창에 소수민족 전통문화가 크게 파괴되었으며 전국적인 혼란과 경제적으로 정체되었던 시기이다.

를 주요 주제로 하며, 도시건축적 측면에서의 거주환경에 대해서는 미비한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연구자들이 중국에 현지방문조사가 가능해지고 또한 중국의 연구자도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의 조선족 마을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2000년대에 진행된 연구를 보면 수량적으로는 한국이 중국보다 문헌 수가 많으나, 1990년대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은 약 1.5배, 중국은 3배 이상이 증가되었다.

2010년 이후의 경향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2000년대의 한해 평균은 4.5편인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의 문헌이 9건으로서, 2000년대와 단순 수치상으로 비교한다면 감소하였다. 이는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00년대의 한해 평균은 2편인데 반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의 문헌이 2편으로서 수치상으로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0년대 연구의 감소현상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3) 문헌유형별 분석

문헌의 자료유형은 <Fig. 4>와 같이 서적, 보고서, 학위논문(석사논문, 박사논문), 학술대회논문, 학술지논문의 형태로 구분하였다⁶⁾. 자료유형을 보면 한국은 학술지논문이 36편으로 가장 많으며, 석사학위논문이 다음으로 나타났다. 보고서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중국현지를 방문한 연구이므로 현지조사 후에는 보고서보다는 학술지논문으로 발표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반면 중국은 서적과 학술지논문이 각각 14편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가장 적은 편수의 문헌유형은 박사논문과 보고서로서, 한국과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적의 경우 도시건축적 관점에서만 다루어진 경우보다는 생활, 문화, 풍습, 인구분포, 사회, 역사 등의 측면을 주요 주제로 하여, 주거환경에 대한 내용은 그 일부로서 다루어지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상이 되는 문헌 중 서적의 경우는 조선족 사회나 문화에 대해서 다루어진 문헌까지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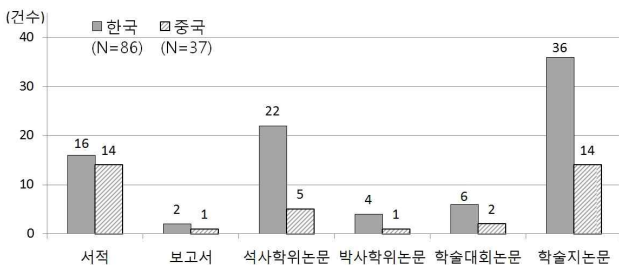


Fig. 4. No. of Literatures by Type

6) 학술대회논문은 학술발표대회, 포럼, 심포지엄, 컨퍼런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학술지논문은 학교논문집도 포함하였다.

2.2 문헌 제목 분석s

문헌 제목은 연구내용을 핵심적으로 제시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므로 먼저 문헌의 제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각 문헌의 제목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단어를 <Table 1>과 같이 추출하였다. 언급된 제목의 빈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국”, “조선족”, “연변”, “연변자치주” 등과 같이 본 연구의 대상문헌을 검색할 때 사용하였으므로, 제목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문헌의 제목을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개념”에 있어서는 역사, 전통, 사회와 같은 관점에서 거주환경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한국보다 중국에서 보다 더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소수민족인 조선족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건축·공간”은 거주환경과 관련되어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나타난 용어로는 도시, 주택, 집거지, 민가, 촌락, 마을, 주거, 실내, 농촌, 취락, 집합주택, 부엌, 아파트, 공동주택, 신 농촌, 화장실이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이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거(25), 농촌(15), 마을(14), 평면(13), 주택(12)의 5개의 용어가 총 79회로 나타났다.

“생활”과 관련된 용어는 총 30회 언급되었다. 생활, 민속, 풍속, 문화, 생활방식, 의식주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시설·설비”는 가장 적게 나타났는데, 취사, 시설설비, 난방방식의 용어로서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 난방방식의 사용실태 및 취사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인간”과 관련성 있는 용어로서 인구, 한족(漢族), 만족(滿足), 몽골족(蒙古族), 시보족(錫伯族), 혁철족(赫哲族), 오원커족(鄂溫克族), 오르손족(鄂倫春族)으로 중국의 경우 타 민족과의 비교연구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다.

Table 1. Analysis of Literature Titles

국가 구분	한국(187)	중국(73)
개념 (33)	전통(8), 역사(2), 인류학(2), 사회(1)	사회(8), 역사(9), 전통(3), 산수정시(1)
건축·공간 (132)	주거(25), 농촌(15), 마을(14), 평면(13), 주택(12), 민가(7), 집합주택(8), 아파트(5), 취락(2), 도시(3), 농가(2), 단독주택(1), 부엌(2), 공동주택(2), 화장실(1)	주택(1), 집거지(2), 민가(10), 촌락(2), 주거(3), 실내(1), 농촌(2), 신 농촌(3), 건설(3)
시설·설비 (5)	취사(2), 시설설비(1), 난방방식(1)	난방방식(1)
생활 (30)	문화(8), 생활(8), 의식주(1), 풍습(1), 도시생활(1), 생활방식(1)	가족생활(1), 민속(2), 풍속(2), 문화(3), 생활방식(2)
인간 (16)	인구(1), 한족(4), 만족(2), 몽골족(1), 민족(1)	인구(1), 만족(1), 시보족(1), 혁철족(1), 오원커족(1), 오르손족(1), 한족(1)
기타 (46)	분포(5), 정착(1), 변화(8), 지속(2), 변용(1), 비교(6), 형성(2), 발전(1), 변천(6), 분류(2), 시기(1), 인식(1), 적응(1), 발전(1), 현실(1)	변천(1), 동화(1), 변화(1), 미산(1), 유동(1), 발전(1), 개황(1)

* (숫자) : 문헌에 나타난 용어의 빈도

마지막으로, 변천, 동화, 변화, 유동, 발전, 개황, 지속, 변동, 인류학, 계획안, 정체성, 발전, 세대별, 배치 유형, 적응, 지역, 인식, 시기별, 분포, 비교, 분류, 정착이라는 용어가 언급되고 있다.

3. 학술지논문의 내용

3.1 학술지논문의 수량 분석

(1) 논문발표 시기

학술지논문 50편의 발표 시기는 <Table 2>와 같다. 연구의 과반 수 이상이 2000년대에 발표되었으며, 이는 한국과 중국이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2년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져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관련연구가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그를 토대로 2000년대에도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졌다. 2010년 이후부터 2013년 까지 총 5편의 학술지논문이 검색되었으며, 한해 평균 발표 문헌 수는 단순 수치상 비교해 볼 때, 1990년대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과 한국이 동일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Table 2. Published Year of Articles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 이후	합계
한국	10	22	4	36
중국	4	9	1	14
계	14	31	5	50

1990년대에 한국에서 중국 조선족 거주환경과 관련된 연구는 1991년 한국학연구에 게재된 “중국 료녕성 개현 진분향 박가구촌 조선족에 대한 역사적 고찰”⁷⁾로서 중국 조선족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서 검색되었다. 중국 료녕성에 존재하는 “박가구촌”이라는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의 이주와 정착, 역사와 상태를 토대로 풍습과 민족감정을 다루고 있다. 마을을 대상으로 도시건축적 관점에서 다루어진 연구는 아니지만, 중국조선족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을 다룬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에서 도시건축분야의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로는 1994년 건축역사연구에 발표된 “中國 延邊地區 朝鮮族의 마을과 주거”⁸⁾이다. 이는 연변 조선족 사회의 마을과 주거의 형성과 정착, 변화와 보존, 대응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중국의 경우에 조선족 거주환경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1990년 민족연구(民族研究)에 게재된 “연변 조선족 집결지의 형성에 대한 논술(論述延邊朝鮮族聚居區的形成)”⁹⁾이다. 이 논문에서는 연변지역에 조선족 주거지역이 형성되는 시기와 인구변화를 다루었다.

중국에서 도시건축의 관점에서 다루어진 최초의 연구는 2001년 건축사논문집(建築史論文集)에 게재된 “중국 동북지구 조선족 민가의 특색 분석(中國東北地區朝鮮族民居特色淺析)”¹⁰⁾이다. 이 연구에서는 19세기 중반부터 중국에 이주·정착하면서 형성되는 조선족 민가의 구성, 평면 및 공간구성, 구조체계, 구조방법 및 건축 재료의 선택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민족특색과 지방특색이 분석되었다.

(2) 연구대상지역의 분포

이상의 50편 학술지논문의 연구대상지역의 분포를 보면 <Fig. 5>와 같다. 지역을 보면, 동북3성(東北3省)인 흑룡강(黑龍江省), 길림성(吉林省), 료녕성(遼寧省)과 연변조선족자치주로 나타나고 있다¹¹⁾. 특히 조선연변자치주의 연길시(延吉市), 용정시(龍井市), 도문시(圖們市)가 대표적인 조선족이 거주하는 시(市)로 대상마을이 집중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한반도의 변경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조선족 인구가 가장 많으며, 민족자치제도와 정책으로 중국에 동화되기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한반도의 주거문화와 마을형태가 상대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지역이 선정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중국의 56여개 민족 중의 하나인 조선족을 대상으로 하므로 구체적인 지역을 선정하지 않고 조선족이라는 민족의 범위를 설정하여 진행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문헌에서도 구체적인 대상지를 선정하고 진행된 중국의 연구는 4편으로 나타났으며, 이 4편의 대상지역은 연변조선족자치주[연길시(延吉市), 용정시(龍井市), 도문시(圖們市)]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한국의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들은 구체적인 연구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중국 조선족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가 진행되므로 연구대상지역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연구에서 여러 지역을 동시에 조사한 경우가 있어, 36편의 연구문헌에서 총 77개 지역이 연구대상지역으로 나타났다.



<Fig. 5> Distribution of Research Area

7) 강룡범, 중국 료녕성 개현 진분향 박가구촌 조선족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한국학연구, 3권, 1991. pp.23-40.
 8) 김봉열, 中國 延邊地區 朝鮮族의 마을과 주거, 건축역사연구, 3권 1호, 1994. pp.57-82.
 9) 孫春日, 論述延邊朝鮮族聚居區的形成, 民族研究, 1990. pp.84-93.

10) 朴玉順, 中國東北地區朝鮮族民居特色淺析, 建築史論文集, 2001. pp.148-154.
 11) 중국 전 인구에 대한 조선족의 분포비는 98.3 : 1.7, 동북3성과 타 지역에 분포된 조선족 비는 97.1 : 2.9이다.

3.2 학술지논문의 내용 분석

학술지논문 50편의 내용은 <Table 3>과 같이 크게 “시대적 관점”과 “계획론적 관점”의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시대적 관점의 반영”과 관련된 내용은 인구변화 및 이주동향, 역사적 고찰 및 당면과제로, ‘계획론적 관점’은 조선족 마을의 공간구조 및 구성, 취락종합조사분석, 주택평면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택평면”에 대한 내용은 생활방식과의 관계, 구성 및 현황, 변천 및 변천과정, 지역적 분포, 취사 및 시설, 타민족과의 비교연구의 6가지로 세분화 될 수 있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이 주택평면과 관련된 문헌이 많은 것에 비해 중국은 시대적 관점이 반영된 문헌이 상대적으로 많아, 중국은 다민족국가이기 때문에 건축분야의 연구보다는 민족의 이질성을 파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판단된다.

(1) 시대적 관점

시대적 관점이 반영된 연구문헌은 12편로서, 구체적으로는 인구변화 및 이주동향, 역사적 고찰 및 당면 과제의 2개로 내용을 세분화 할 수 있다. 인구변화 및 이주동향에 대한 내용을 보면, 조선족 공동체의 형성과정, 인구감소의 원인, 인구유동과 지역적 주요 흐름, 인구감소로 인해 나타난 변화를 고찰하고 있다. 또한 조선족 거주 지역의 변화, 농촌의 산업구조와 마을 구조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역사적 고찰 및 당면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족에 대한 관점과 농촌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과 문제점들을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주거환경에 있어서는 조선족의 차별성과 역사적 현

황, 동화과정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연변 지역의 조선족과 한족의 생활방식 동화 변천을 중심으로 연변지역 조선족들의 동화현상은 한족과 장기간 공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동화의 속도도 전에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의 시대적 관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1990년대에는 조선족의 역사를 주로 다루는 반면, 2000년대에는 인구의 대이동에 관한 내용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대에는 조선족 인구의 감소로 인한 지역성의 변화를 다루고 있는 연구도 나타났다.

(2) 계획론적 관점

① 마을의 공간구조 및 구성

조선족 마을의 공간구조 및 구성에 관련된 연구는 총 9편이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선족 전통마을의 공간구성, 분포현황 및 세대별 배치유형을 고찰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직접 마을을 방문한 실측조사와 면담조사로 이루어졌다. 조선족 마을은 대부분 배산임수의 입지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주택의 주향은 남향, 전통적인 우리나라 마을의 공간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이 되는 조선족 마을은 대부분 개척시기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으며 민족의 옛 풍습이 남아 있는 경향이다.

② 취락 종합조사 분석

취락 종합조사 분석의 경우에는 조선족 농촌 주거실태, 조선족 민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분석이다. 이들은 자연부락의 특성을 지닌 조선족전통 농촌의 실태조사, 전통민가 특성을 실측조사와 문헌으로 고찰하였다. 대상주택은 대부분이 전통 민가로서 시대가 흐르면서 초가집에서 기와집으로 개조하거나 기와집으로 신축하는 사례가

<Table 3> Main Contents of Articles

분류	내용	편수			
		한국	중국	계	
시대적 관점	인구변화 및 이주동향	2	1	3	
	역사적 고찰 및 당면과제	4	5	9	
계획론적 관점	마을의 공간구조 및 구성	8	1	9	
	취락 종합조사 분석	-	3	3	
	주택평면	생활방식과의 관계	2	1	3
		구성 및 현황	7	1	8
		변천 및 변천과정	5	-	5
		지역적 분포	3	1	4
		취사 및 시설	2	1	3
타민족과 비교연구		3	-	3	
합계		36	14	50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리, 기후, 문화의 영향으로 서서히 타민족 민가의 영향으로 혼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③ 주택평면

주택평면에 대한 연구는 생활방식과의 관계, 구성 및 현황, 변천 및 변천과정, 지역, 취사 및 시설, 타민족과의 비교연구의 6가지로, 연구방법은 대부분 실측조사와 인터뷰조사를 진행되었다.

연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연변지역의 마을은 순수한 조선족 마을로 지속되어 왔으며, 함경도식 양통집이고 “정지”가 주생활의 중심공간이다. 아직까지 좌식생활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난방방식인 온돌문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영향으로 남녀평등의 핵가족화가 일반화되어 실내 칸막이가 소멸되어지고 있다.

주택 내부로의 진입형식을 보면, 길림성에는 주로 “정지진입형”, 흑룡강성과 료녕성은 “부엌진입형”과 “복도진입형” 또는 “거실중심형”의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는 이주민 고향의 주거문화와 관련해서 판단할 수 있다. 지역별로 고향분포를 보면 길림성은 함경도와 평안도의 이주민이 대부분이고, 흑룡강성은 함경도, 평안도, 경상도, 충청도 등 다양한 지역으로 나타나며, 료녕성은 경상북도, 평안도, 강원도 등 지역으로 나타난다.¹²⁾ 함경도와 평안도에서 이주해 온 조선족들은 그들의 고향 주거문화를 고수하는데 비하여, 그의 지역에서 온 이주민들은 한반도의 주거문화가 변화된 경향이 있다. 이는 함경도와 평안도에서 이주해 온 조선족들은 한반도의 주거문화를 중국에서 유지하는데 있어서 자연환경적인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 온 이주민들은(함경도와 평안도 이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자연환경의 차이가 크므로, 그들 고향의 주거문화를 중국에서 유지하기가 힘들어, 지역에 적응하기 위하여 변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취사 및 시설적 측면은 한반도의 전통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식생활은 한족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우리민족 고유의 음식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생활 시설은 현대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연변 조선족 전통농가의 시설이 특히 도시 문화가 보급되면서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연변조선족 마을과 주거는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중국식의 요소¹³⁾가 주거문화에 영향을 미쳤지만, 여전히 한반도의 온돌을 기반으로 한 주거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집합주택의 평면구성은 도입초기부터

한족들과는 다른 평면이 개발되어 보급되어 왔는데, 길림성에는 주로 “정지진입형”, 흑룡강성과 료녕성은 “부엌진입형”과 “복도진입형” 또는 “거실중심형”의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었다.

타민족과의 비교연구에서는 대부분이 한족의 주거문화와 비교되고 있다. 조선족 주거는 온돌중심의 좌식생활 중심으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는 반면 한족은 칸(炕)¹⁴⁾을 중심으로 한 입식생활에 적합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길시 집합주택의 사례에서 보면,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족과 조선족의 주택평면구성은 확연히 구분되었으나, 1980년대부터 온돌과 칸(炕)구조의 난방 설치가 제도적으로 금지되면서 공통평면형이 보편화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온수바닥 난방이 도입되어 다양한 공통평면형이 나타나고 있으나, 생활방식과 주생활 의식적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각 민족 간의 주거문화에는 기본 형식을 유지하고 있으나 변화과정에 맞추어 주택도 변화하고 적응하려는 경향을 알 수 있다. 민족 간의 영향관계는 일정한 법칙성이 있기 보다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나 그 민족별 특성이 융합되는 경향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획론적 관점 관련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초기에는 중국 조선족 주거에 대한 현황과 실태조사, 다음에는 주거의 변화, 그리고 이후에는 타민족간의 비교연구로 연구의 경향이 변화하고 있다.

4. 주택관련연구 동향분석

4.1 전통주거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한국 연구자들이 현지조사를 통해 진행한 연구의 주된 내용은 한반도 주거문화가 중국 조선족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에는 현대적 주거보다는 전통적인 한반도 주거의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전통주거의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는 연변조선족자치주를 대상으로 한 연구[장보웅(1992)¹⁵⁾과 김봉렬(1994)¹⁶⁾와 동북 3성의 각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종영(1996)¹⁷⁾]가 있다.

전통주거의 관점에서의 최초의 연구는 한국의 장보웅의 “中國 東北地方 朝鮮族의 民家 研究;延邊地方 朝鮮族

12) 김일학·박용환, 조선족 농촌주거 공간구성형태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15권 4호, 2009. pp.74-87.

13) 중국적 요소

①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남녀평등과 핵가족화가 일반화되었고, 이로 인해 실내의 칸막이가 없어지고 있다.

② 지이(부엌)와 거주실(정주칸) 사이가 유리문 또는 간벽으로 차단함. (튀기거나 볶는 조리방식인 보편적인 중국 음식 때문에 기름이 튀고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부엌과 거주실 간에 칸막이가 형성된 것이라 판단된다)

14) 칸(炕)은 중국의 한족(漢族)식 온돌난방 방식으로 입식생활(방 한쪽이 침대이면서 온돌)의 주거양식이다. 따라서 주호 전체에 온돌을 이용한 난방방식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난방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15) 장보웅, 中國 東北地方 朝鮮族의 民家 研究;延邊地方 朝鮮族自治州를 中心으로, 대한지리학회논문집, 27권 2호, 1992. pp.117-128.

16) 김봉렬, 中國 延邊地區 朝鮮族의 마을과 주거, 건축역사학회 논문집, 3권 1호, 1994. pp.58-82.

17) 김종영, 중국 조선족 주거의 공간구성 형태와 그 지역분포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7권 1호, 1996. pp.95-103.

自治州를 中心으로(1992)”이다. 이 연구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 마을을 대상으로 한반도에서 이주해 온 조선족들이 거주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그들이 초창기에 가져온 주택 원형의 보존과 변화에 대해서 실측조사하고 검토하였다. 조사결과 대부분이 합경도식의 평면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나, 중국정부의 가족계획 정책과 인구 감소로 인해 변화하고 있음을 밝혔다.

중국 조선족 전통주거에 대하여 동북 3성의 19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김종영(1996)은 조선족 주거의 공간구성 형태와 분포특성을 고찰하였다. 조선족 마을은 지역에 따라 다른 공간구성이 나타났는데, 이는 그 지역에 정착한 조선족의 출신지역과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변지역과 그 외 지역의 공간구성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근대화의 영향이라고 밝히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전통주거와 관련된 연구가 급증하였다. 1990년대에서는 한국 연구자들의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2000년대에는 중국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는 도시화, 도시진출, 해외출국 등 농촌의 조선족 인구가 감소되고,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운동’¹⁸⁾으로 인하여 전통초가를 허물고 단일한 구조의 벽돌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함으로써 전통주거의 변형과 훼손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중국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연구 대상은 조선족의 난방방식인 온돌이다. 대표적으로 朴玉順¹⁹⁾으로서 온돌의 구조, 분류, 난방방식의 특징과 그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김성우(2001)²⁰⁾와 金正鎬(2004)²¹⁾은 민족별 주거 공간 및 주거문화에 대한 비교연구를 다문화의 관점에서 연구를 하여, 타민족과의 비교연구가 시작되었다.

2010년대에 있어서 전통주거에 대한 연구는 부엌공간의 특징을 파악하고 취사 및 식사방식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기술의 변화에 의한 부엌시설 및 설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 보아진다. 대표적으로 김일학²²⁾은 중국 동북 3성 각 지역 21개 마을의 212개 주택에 대하여 부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상 전통주거에 대한 연구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연구대상지역에 있어서는 1990년대 초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집중되어 있다가 말기에 들어서면서 동북3성으로 지역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내용적 측면을 보면

공간구성, 평면계획적 측면에서 2000년대 이후에는 시설 및 설비, 타민족과의 비교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 연구는 평면이나 주거양식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별주택의 구조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4.2 현대주거

조선족의 현대주거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말부터 학위논문 형태의 연구가 있으며, 현대주거에 있어서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된 시기는 2000년 이후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자는 김종영²³⁾으로서, 조선족과 한족의 현대주거의 평면구성에 대한 비교연구를 비롯한 부엌, 난방방식, 화장실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학술지논문으로 게재된 최초의 조선족 현대주거에 관한 연구는 김종영(2000)²⁴⁾으로서 료녕성의 조선족 집중 거주지역인 5개 구역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공간구성형태와 시대별변화와 주생활양식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동수·동정근(2001)²⁵⁾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주거형식의 장점을 분석하여, 조선족이 희망하는 이상적인 주거형식을 규명하고, 한국 내의 주거형식이 조선족의 주거형식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술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연길시의 조선족 공동주거의 변천과정과 중국의 주택정책 및 주거문화와의 상관관계, 연길시의 도시구조와 기능을 분석하였다.

김혁(2009)²⁶⁾은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의 아파트평면을 대상으로 1980년대부터 2008년까지 아파트 평면에 대한 시기별 변화를 추적하고, 한족과 조선족의 주거특성의 차이와 평면구성에 영향을 주는 공간요소들을 분류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상 현대주거에 연구경향을 전반적으로 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공간구성의 현황이나 실태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타 민족과의 비교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말기에는 주택평면의 변화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현대주거에 대한 연구의 대상주택은 도시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집합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대상지역은 도시화가 상대적으로 진행된 연길시를 대상으로 하

18) 2005년 중국정부가 농촌경제의 발전과 농민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농촌건설운동이다.
19) 朴玉順, 溫突-朝鮮族民居的獨特采暖方式, 沈陽建筑工程學院學報. 16권3 호, 2000. pp.160-162.
20) 김성우, 中國 遼寧省 滿洲族, 韓族, 朝鮮族 民家 사이의 상호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권 11호, 2001. pp.117-123.
21) 金正鎬, 東北地區傳統民居与居住文化研究-以滿族、朝鮮族、漢族民居爲中心, 박사학위논문, 2004.
22) 김일학, 조선족 농촌주거의 부엌공간의 형태와 취사 및 식사방법,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1권 1호, 2010. pp.11-21.

23) 김종영, 中國 延邊 朝鮮族과 漢族의 集合住宅 平面構成 比較 研究,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5권 4호, 2004. pp.56-63.
김종영, 중국 연변 조선족 집합주택의 취사 및 식사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3권 2호, 2002. pp.65-71.
김종영, 중국 연변조선족 집합주택의 화장실 평면구성에 관한 연구, 산업기술연구소 논문보고집, 23권 1호, 2010. pp.19-28.
24) 김종영, 중국 료녕성 조선족 도시단독주택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1권 1호, 2000. pp.125-134.
25) 한동수·동정근, 중국 조선족 공동주거의 환경개선을 위한 주거 만족도 조사연구, 2001 동아시아 주거문화 국제 심포지엄 (동아시아 주거문화의 동질성과 이질성), 2001. pp.105-150.
26) 김혁, 중국 연길시 아파트 평면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5권 7호, 2009. pp.49-57.

고 있다. 연길시는 중국 내 전체 조선족의 41%가 거주하고 있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수도이며, 도시 전체 인구의 60%가 조선족이므로 중국 내에서 조선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며 조선족의 민족전통과 민족문화가 상대적으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주거의 변화양상이 비교적 뚜렷한 지역이며, 온돌문화가 현대주택에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연길시가 도시주거의 주요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조선족의 거주환경에 대하여 한국과 중국에서 진행된 연구문헌의 동향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조선족 거주환경에 대한 문헌은 총 123건으로서 한국이 86건(69.9%)이며, 중국은 37건(30.1%)으로 한국에서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를 보면, 중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1990년대 이후로 중국에서 현지조사가 가능해지고, 중국의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의 조선족 마을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문헌의 유형을 보면, 한국에서는 학술지논문(36편)과 석사학위논문(22편)이 많으나, 중국의 경우는 서적(14편)과 학술지논문(14편)이 상대적으로 많다. 학술지논문에서 연구대상지는 동북3성(東北3省)인 흑룡강(黑龍江省), 길림성(吉林省), 료닝성(遼寧省)과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한반도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조선족이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하였으므로 조선족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헌의 제목에 따른 경향을 보면, 중국은 역사, 전통, 사회와 같은 관점에서 거주환경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이는 중국이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타민족과의 비교연구도 한국보다 중국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거주환경에 있어서는 “건축·공간”의 관점에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마을과 주거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학술지 논문 내용은 “시대적 관점”, “계획론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있다. 먼저 시대적 관점의 연구는, 1990년대 조선족 역사 연구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의 조선족 인구 이동과 관련된 것으로, 더 나아가 최근에는 조선족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성 변화를 다루는 연구로 변해 왔다. 그리고 “계획론적 관점 관련 연구”는, 초기의 현황조사연구에서, 점차 주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최근에는 주택의 비교 연구로 연구관점이 다양화되어 왔다.

조선족 전통주거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연변조선족자치주나 동북 3성의 각 지역을 토대로 조선족 전통주거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는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한국 학자들의 현지조사가 가능해지면서 전통주거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연구내용은 주로 평면과 주생활양식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연구대상지역은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집중되어 있다.

조선족 현대주거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연길시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연길시가 중국 내 조선족의 41%가 거주하고 있어, 조선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현대주거의 변화양상이 비교적 뚜렷한 지역이며, 온돌문화가 현대주택에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중국 조선족 거주환경 관련 연구는 보다 체계적이고 일반화된 이론으로 정립하기 위해 공간적 측면, 민족적 측면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강릉범, 중국 료닝성 개현 진통향 박가구촌 조선족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한국학연구, 3권, 1991. pp.23-40.
2. 김봉열, 中國 延邊地區 朝鮮族의 마을과 주거, 건축역사연구, 건축역사학회, 3권 2호, 1994. pp.57-82.
3. 김성우, 中國 遼寧省 滿洲族, 韓族, 朝鮮族 民家 사이의 상호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권 11호, 2001. pp.117-123.
4. 김수인, 中國 少數民族의 住居 研究, 조선대 환경연구 15(2), 15권 2호, 1999. pp.83-98.
5. 김일학, 조선족 농촌주거의 부엌공간의 형태와 취사 및 식사 방법,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1권 1호, 2010. pp.11-21.
6. 金日學, 朝鮮族民居空間特性研究, 吉林建筑工程學院學報, 28권 5호, 2011. pp.54-56.
7. 김일학·박용환, 조선족 농촌주거 공간구성형태의 지역적 특징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15권 4호, 2009. pp.74-87.
8. 金正鎭, 東北地區傳統民居与居住文化研究 - 以滿族、朝鮮族、漢族民居爲中心, 박사학위논문, 2004.
9. 김종영, 중국 조선족 주거의 공간구성 형태와 그 지역분포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7권 1호, 1996. pp.95-103.
10. 김종영, 중국 료닝성 조선족 도시단독주택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1권 1호, 2000. pp.125-134.
11. 김종영, 중국 연변 조선족 집합주택의 취사 및 식사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3권 2호, 2002. pp.65-71.
12. 김종영, 中國 延邊 朝鮮族과 漢族의 集合住宅 平面構成 比較 研究,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5권 4호, 2004. pp.56-63.
13. 김종영, 중국 연변조선족 집합주택의 화장실 평면구성에 관한 연구, 산업기술연구소 논문보고집, 23권 1호, 2010. pp.19-28.
14. 김혁, 중국 연길시 아파트 평면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5권 7호, 2009. pp.49-57.
15. 朴玉順, 溫突 - 朝鮮族民居의 獨特采暖方式, 沈陽建筑工程學院學報, 16권 3호, 2000. pp.160-162.
16. 朴玉順, 中國東北地區朝鮮族民居特色淺析, 建築史論文集, 2001. pp.148-154.
17. 孫春日, 論述延邊朝鮮族聚居區的形成, 民族研究, 1990. pp.84-93.
18. 장보용, 中國 東北地方 朝鮮族의 民家 研究:延邊地方 朝鮮族自治州를 中心으로, 대한지리학회논문집, 27권 2호, 1992. pp.117-128.

접수일자 : 2014. 10. 10.
 심사완료일자 : 2014. 11. 20.
 게재확정일자 : 2015. 2. 22.